

요 약

1. 연구의 개요

자활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 후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급증한 실업 빈곤가구에게 최저수준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전통적 공공부조의 수준을 넘어 이전의 안정된 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취·창업 교육을 제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제도화된 적극적 복지제도이다.

2001년 자활사업이 본격화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3년경부터 학계와 자활사업 현장에서는 자활기관협의체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운영을 지원할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2004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광역자치단체를 활동범위로 하는 광역자활센터가 설치·운영되었다. 그러나 2012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야 광역자활센터 설치 근거규정이 마련되는 등 광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지역에도 2010년 말에 광역자활센터가 설치·운영되었으나 다른 지역의 광역자활센터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여 서울지역의 자활사업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분명한 방향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서울광역자활센터가 서울지역의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역할과 활동영역, 사업추진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구진은 관련 법률 및 조례, 보건복지부 지침, 관련 선행연구 및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기대역할을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광역자활센터를 포함한 전국 7개 광역자활센터의 조직, 인력, 예산 및 주요 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광역자활센터들의 전반적인 운영방향과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광역자활센터 담당자, 광역자활센터 관계자, 해당 지역 지역자활센터협회, 중앙자활센터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광역자활센터 운영 방향과 전망,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2. 광역자활센터 활동실태 및 시사점

이 연구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서울광역자활센터가 서울지역의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역할과 활동영역, 사업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조례, 보건복지부 지침, 관련 선행연구 및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기대역할을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광역자활센터를 포함한 전국 7개 광역자활센터의 조직, 인력, 예산 및 주요 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광역자활센터들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광역자활센터 담당자, 광역자활센터 관계자, 해당 지역 지역자활센터 협회, 중앙자활센터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광역자활센터 운영 방향과 전망,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부산 등 총 3곳의 광역자활센터를 선정했다.

법률과 선행연구 및 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자활지원체계 구성기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광역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연구진이 파악한 실제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실태를 종합하여 서울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참고할만한 몇 가지 시사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광역자활센터 설립 당시 설정된 인력 및 예산 규모,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활센터 간 관계가 이후 광역자활센터의 역할과 활동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둘째, 광역자활센터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역할 및 기능은 지역에 상관없이 대동소이하였다. 셋째, 광역단위 자활지원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광역자활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차이가 해당 지역의 자활사업 성과 및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넷째, 광역자활센터와 광역자치단체, 지역자활센터협회로 대표되는 지역자활센터들 간 삼자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삼자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광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인터뷰를 통해 만나본 전문가와 실무자들은 공통적으로 광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구체화되지 못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업무지침 혹은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 서둘러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법률과 선행연구 및 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자활지원체계 구성기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광역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연구진이 파악한 실제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실태, 그리고 경기, 인천, 부산 등 세 군데의 광역자활센터들을 벤치마킹한 결과를 종합하여 서울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서울 광역자활센터가 중점적으로 담당해야 할 역할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의제선도 및 지역특화사업 개발, 둘째, 지역자활센터 지원, 셋째, 광역단위 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넷째, 외부 펀드 사업 유치, 다섯째,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 대한 소통 창구가 그것이다.

또한 제시된 다섯 가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광역자활센터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시적인 성과 만들기, 둘째, 자활사업 계획·지침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셋째, 아이디어를 넘어 구체적 사업계획 세우기, 넷째, 지역자활센터와의 협력구조 구축, 다섯째, 지역자활센터협회의 대변조직 이미지 탈피하기가 그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서울 광역자활센터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해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여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유명무실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네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광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의 첫째 조건은 광역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 권한이 명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건은 서울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조건은 서울 광역자활센터가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조건은 광역자활센터 성과평가방식 및 평가 지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